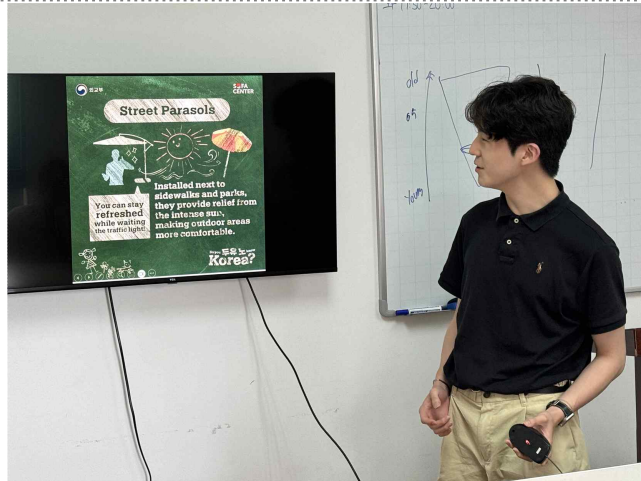


# 1 조 활동 보고서

인적 사항	조장	배소희	
	조원	사회학과 이건휘, 경영학과 이형주, 영어영문학과 이지연	
활동기간		사전 준비 6/5~6/21, 현지 활동 6/26	
활동장소		하노이 한-베 문화교류센터	
활동주제		베트남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대학생활 문화교류 및 가치관 차이 탐구	
추진일정 및 경과		일시	상세내용(사진첨부)
		6/21일 16:00시	<p>  YONG   안녕 하세요 팀장님~            저희 현지 지엽아일랜드 매니저님, 권준호 선생님 초대 하였습니다.     금요일 화상회의 시간 한국시간 16:00에 관참으            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7:24         </p> <p>  diep anh   안녕하세요! 한베문화교류센터 아임입니다. 반갑            습니다!            17:24         </p> <p>  권준호   안녕하세요~ 한베문화교류센터 권준호라고 합            니다~~ 저희는 한국시간 16:00시 회의 가능합            니다~            17:26         </p> <p>베트남 현지 센터 접촉 및 일정조율과 상세 내용을 협의하          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할 학교 기념          품 역시 국제학부 교학팀으로부터 전달받아 출국 전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준비를 마쳤습니다.</p>
		6/26일 10:00~12:00시	<p>하노이 한-베 문화센터에 방문해 아주대학교 소개 및 각 학과에          대한 소개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팀원들은 대학교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아주대학교의 특별한 특징과 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대학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건휘님은 사회학과의 관점을 베트남과 한국 사회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학문적 이해를 도왔고, 지연님은 영어영문학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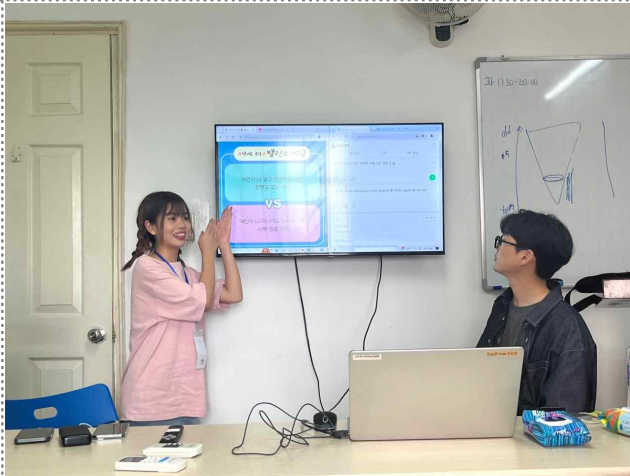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행사를 소개해 베트남 현지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형주님은 학과 소개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여름 문화의 차이도 추가적으로 소개하며 폭넓고 심도있는 문화 교류를 통해 베트남과 한국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베 문화교류센터에서 준비해준 베트남 대표 음식인 분짜를 함께 먹으며 베트남 학생들이 관심있다고 이야기한 K-POP, 드라마, 한국 대학교 유학에 관한 질문 등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현지 학생들의 친구 중 상당수가 아주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위상과 국제 교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6/26일  
12:00~14:00시





오후 시간에는 MT를 경험한 적 없다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MT 게임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밸러스 게임을 통해 한국 학생과 베트남 학생의 가치관 차이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 우정, 가정 가치관 등에 대해 토론하며 각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26  
15:00~18:00

오후 일정으로 롱비엔 현지 시장에 방문해 농산물 도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지민들의 실제 삶을 확인하고 음식이나 물품을 구매해보면서 베트남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형마트에서 식자재 및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소비 활동이 즐겁고 어릴 적 전통 시장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 결과보고

**사회학과/이건휘:** 베트남의 한국어학과 대학생들과 만나서 서로의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학과인 사회학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공유하면서 베트남의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느꼈다. 첫째, 문화와 사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현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상호 이해와 소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사회현상을 분석해보는 경험은 매우 가치 있었다. 베트남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한국의 사회학적 이론과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내 학문적 지식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교류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의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학문적 연구나 사회적 활동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활동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영어영문학과/이지연:** 나는 하계 문화 체험을 다녀오기 전까지 국제 통상이나 지역 연구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다. 교직 이수를 준비하며 교육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계 문화 체험도 부담 없이 신청하였다. 그런데 하계 문화 체험 중 코트라 등의 기업을 탐방하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내 진로가 국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러 기업을 탐방하면서 나는 국제 무역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또한, 하계 문화 체험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양한 학과에서 온 학우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학과와 진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제 통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더 나아가 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는 단순히 진로를 교육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국제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경영학과/이형주:**4시간 간의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대면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장기적 교류 계획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로에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단순한 해외여행은 자주 갈 수 있을지라도, 현지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흔치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교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었다. 1시간이 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 학생들의 지치지 않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이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염원이 들었다. 반대로 베트남 학생들에게 그들의 고향 이야기, 학교 생활 등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와 같은 점이 있어서 혹은 상상치도 못한 다른 점이 있어 놀라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대학에는 축제와 같은 단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단순히 미디어로는 알 수 없는 문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 문화교류는 세계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아주대학교 영자신문사(The Ajou Globe)의 신문 소개에 큰 호응을 보여 지속적으로 신문을 발송하고자 한다. 본지에는 교내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다룬다. 따라서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더해 본지가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베트남 구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본지 또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해외 전문 기사를 꿈꾸고 있기에 문화교류는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 혹은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정치외교학과/배소희:**한-베 베트남 교류센터 방문을 준비하면서 시험 기간과 바쁜 학기 일정에도 팀원들과 협력하여 현지 방문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과 학생들과 만나 교류하고 협력하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베트남 학생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동력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 학생들은 진로 및 취업 걱정과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내가 만난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 취업을 희망하고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감사함과 나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여러 전쟁과 침략받은 역사를 공유하면서도 유교 문화, 실리를 추구하는 베트남의 문화는 흥미롭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학문적 교류와 감정적 교류도 같이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교류 기회를 통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리고 베트남 학생들의 학교 생활, 문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외 취업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관심 역시 커져 이를 준비하고자 한다.